

성인 초기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최 효 선

양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관계에서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억제하는 자기침묵과 성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연애 중인 성인 미혼 여성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고정관념은 연인관계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을 단순 매개하였을 때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이 만족스러운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이 내는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인의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성인 초기 여성, 연인관계 만족도, 젠더 고정관념,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

* 본 논문은 최효선(2018)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E-mail : sujinyang@ewha.ac.kr

한국은 성별 간 권력의 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144개국 118위로 하위권에 속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불균형한 권력 구조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발언의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성별 구조의 약자인 여성에게는 침묵할 것을 은밀하게 강요한다(이정은, 2001). 그 예로 우리나라 여성의 72.7%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을 경험하지만(여성가족부, 2016), 그에 대한 신고율은 10% 미만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범죄 신고율이 40~50%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각계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 · 나도 당했다)’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미투 운동은 그간 여성이 성(Sexuality)과 관련하여 철저한 약자로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여성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의 미투 운동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사회에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공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이다(정희진, 2013). 특히 연애는 사적인 행위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젠더 질서 속에서 정형화된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에(권보드래, 2008), 여성 개개인이 연인 간의 관

계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연인관계는 두 사람이 사랑에 기초하여 형성한 낭만적 관계로(Cunningham & Antil, 1981),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하였던 애착 관계 이후로 타인과 맺게 되는 가장 친밀한 형태의 관계이다(Hazan & Shaver, 1987). 만족스러운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 내적인 행복, 삶의 만족도,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 이후의 적응이나 결혼 만족도, 결혼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대식, 1998; Fowers & Olson, 1993; Joyner & Udry, 2000). 특히 성인 초기에 형성하는 연인관계는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또래나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연인관계는 다른 그 어떤 또래 관계보다도 더 큰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며,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타인과의 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초기 발달 과업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Kite & Whitley, 2016). 연인관계는 낭만적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한 관계이지만, 만약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립감을 지각하게 되고 나아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이 저해된다(Erikson, 1959). 더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연인관계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김명화, 홍혜영, 2011; 윤경자, 1997; Litzinger & Gordon, 2005; Meeks, Hendrick, & Hendrick, 1998), 성인 초기 여성의 연인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만족스러운 연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젠더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을 들 수 있다. 젠더 고정관념은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 성별에 따라 성격 특성, 행동양식, 직업, 신체적 특징 등 다른 특성을 지녔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뜻한다(Kite, Deaux, & Haines, 2008). 여기서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sex)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별에 의한 정체성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Tidd, 2007). 즉 젠더 고정관념은 절대적인 성별 특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젠더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Cejka & Eagly, 1999; Gibbons, Hamby, & Dennis, 1997). 만약 개인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조혜자, 방희정, 2003; Whitley & Kite, 2016),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에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젠더 고정관념을 수용하여 촉발된 젠더 규범적인 행동들은 연인 간의 성적, 관계적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Donahue & Fallon, 2003; Guerrero-Witt & Wood, 2010; Kiefer & Sanchez, 2007). 젠더 고정관념이 상대의 성격이나 욕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여 관계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절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Dorthery, 1981; Eidelson & Epstein, 1982). 또한 개인의 특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젠더 고정관념을 관계 내에 무조건 적용하려는 시도로 관계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Stackert & Bursik, 2003). 특히 젠더 평등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확장되고 여성의 사

회진출 증가로 성 역할의 부여가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젠더 고정관념의 수준이 낮을수록 연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규진 외, 2013; Donaghue & Fallon, 2003; Kiefer & Sanchez, 2007; Sanchez, Phelan, Moss-Racusin, & Good, 2012).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젠더 고정관념이 확고한 사회에서는, 일부의 개인이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성 역할에 대해 스스로 정립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인 및 부부 관계에 불만족하였다(Kim, 1992; Lye & Biblarz, 1993). 즉, 젠더 고정관념이 연인관계 만족도와 부적연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인 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연인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젠더 고정관념을 지녀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Donahue & Fallon, 2003; Stackert & Bursik, 2003). 따라서 성 평등과 불평등이 혼재한 현대 한국사회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연인관계 만족도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제를 명확히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 역시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기침묵(self-silencing)의 개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기침묵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고자 자기-희생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Jack, 1991; Jack & Dill, 1992). 자기침묵은 자신의 목소리를 소거함으로써 자기나 삶에 대한 상실감을 지각하게 하며, 부끄러움, 절망, 분노, 자기 배반과 관련한 정서를 느끼게 하고(Jack, 1991; Jack & Ali, 2010), 낮은 관계 만족도,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다(Arata & Lindman, 2002; Drew, Heesacker, Frost & Oelke, 2004; Hart & Thompson, 1996; Thompson, 1995). 특히 연인 관계 안에서 여성이 자기침묵을 할 경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친밀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Hart & Thompson, 1996; Jack, 1991; Thompson, 1995). 왜냐하면 자기침묵은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거짓된 자기와 진실된 자기의 갈등을 유발하여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또한 자기침묵은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자기침묵으로 유발된 우울함은 물론 연인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명화, 홍혜영, 2011; 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자기침묵에서 탈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 하나는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 경험 혹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적 요구와 욕망을 말하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임신과 성병을 막기 위해 피임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East & Adams, 2002; Morokoff, 1997). 자기침묵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은 만족스러운 연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안지인, 고영건, 2014; MacNeil & Byers, 2005; Katz & Tirone, 2009; Zhang & Yip, 2017). 이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감수하는 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죄책감, 실망감, 자기 가치감의 하락, 자존감의 상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Impett & Peplau, 2003). 또한 성에 대한 표현의 결핍이나 부족은 서로의 성적 욕구나 정서, 기호, 기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Impett & Peplau, 2003; MacNeil & Byers, 2005).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맥락 안에서 자율성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인관계 전략인 자기침묵과는 구별된다(Jack, 1991). 자기침묵은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대방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억누르거나 통제하게 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주체로서의 의지를 발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연, 이은설, 2005; London, Downey, Romero-Canyas, Rattan, & Tyson, 2012; Jack & Ali, 2010).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기침묵을 지닌 여성은 성에 대해서 연인과 덜 이야기하게 되고, 성에 대한 담론의 부재는 파트너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피임을 주장하지 않는 등 성적인 맥락에서의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DeMarco & Johnsen, 2003; DeMarco & Lanier, 2014; El-Bassel et al., 2003; Widman, Welsh, McNulty, & Little, 2006).

이러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이 오로지 개인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가는 사회의 젠더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에게 어떤 이미지와 역할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수동성과 무기력, 열등성의 상징으로서 침묵하는 자로 간주되어 왔으며(이정은, 2001), 연인관계 내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은 여성으로 하여금 관계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표

현하지 않게 한다(Duarte & Thompson, 1999; Jack, 1991; Tan & Carfagnini, 2008). 여성의 몸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정의, 적극적인 여성은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성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여성이 상냥할 것을 바라는 사회적 기대로 특징지어지는 젠더 고정관념들은 여성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Harter, 2012; Mahalik, Aldarondo, Gilbert-Gokhale, & Shore, 2005; Smolak & Murren, 2004; Sheffield, 1995).

성적인 맥락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사회는 여성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고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쌓아줌으로서 여성이 성 역할에 있어서 복종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한다(Alvarez, Bauermeister & Villarruel, 2014; Sanchez, Kiefer & Ybarra, 2006). 여성에게 성은 금기시된 영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없는 연인이라도 여성이 성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손강숙, 정소미, 2016; 윤가현, 양동욱, 2016; Babin, 2013). 더구나 성적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성 행위를 주도하는 반면, 여성은 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남성의 주도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한다는 젠더 고정관념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주장을 덜 하게 된다(손강숙, 정소미, 2016; Choi, Yang & Youn, 2015; Impett & Peplau, 2003; Morokoff, 1990; Muehlenhard & McCoy, 1991; O'Sullivan & Byers, 1992; Sanchez et al., 2006; Vannier & O'sullivan,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젠더

고정관념은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에 각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즉, 여성이 여성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는 여러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친밀한 관계의 성적 맥락에서도 자기의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관계에 대한 만족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며 각 젠더 고정관념은 개인의 표현과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다. 하지만 젠더 고정관념은 남성에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식으로 성별에 따라 정반대로 기능한다(Prentice, & Carranza, 2002). 남성중심주의 사회가 구성한 규범에 따라 여성은 침묵하는, 혹은 침묵해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여성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관계적 맥락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획득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Gilligan, 1982),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낮은 관계 만족도를 보인다(김명화, 홍혜영, 2011; Keizer & Komter, 2015; 윤경자,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를 파악하여 여성의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젠더 평등과 불평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대에서 성인 초기의 여성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연인관계에서의 만족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규정된 젠더 고정관념이 대인관계적인 맥락과 성적인 맥락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가치와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보다 젠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개인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줄 연인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여성들 스스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할 것이다
2.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3.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4.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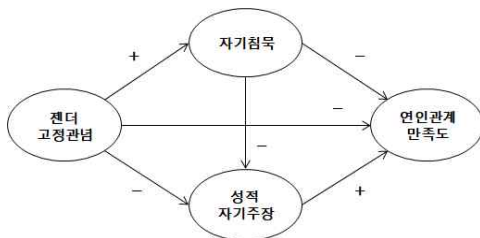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연애를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성인 미혼 여성(만 19세~36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98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설문 13부(3.3%)와 전체 문항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1.7%)를 설문에서 제외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상위 응답 케이스 16부(4.0%)를 제외(cut-off)하였다. 동성(여성)과 연애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젠더 고정관념에 있어서 대조군과의 유의미한 차이($t=2.36, p<.01$)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7부(1.7%)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43부(10.8%)를 제외한 355명($M=23.8, SD=3.70$)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젠더 고정관념

젠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이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를 근거로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2005)이 제작한 한국형 성차별주의 척도(Kore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 K-ASI)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36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18개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호적 남성

주의, 보완적 성분화, 친밀한 이성애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젠더 고정관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상수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에서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연인관계 만족도

Funk와 Rogge(2007)가 개발한 관계 만족 척도(Couples Satisfaction Index: CS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2개의 문항으로 6점과 7점 Likert식 척도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합산 점수는 연인 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7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 문항은 1개로,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과 연인의 관계에 대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머지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나는 내 연인과의 사이가 긴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가끔 나를 위한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연인 간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나 생각, 행동의 양상에 대해 측정하였다. Funk와 Rogge(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기침묵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침묵(self-silencing)적 인지 도식과 행동, 정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김미진(2009)이 번안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적인 자기지각 6문항('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9문항('배려하는 타인의 욕구를 내 욕구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침묵 행동 9문항('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의견 차이가 생길 것 같으면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분리된 자기 7문항('나 혼자 있을 때보다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렵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침묵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ack과 Dill(199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임상 집단에서 .78에서 .90, 여대생 집단에서는 .65에서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지연, 이은설(2006)이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성행동의 시도 6문항('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애인이 내가 원하는 성행동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역)),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5문항('내가 원치 않더라도 애인이 섹스를 원하면 응할 것이다'(역)),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5문항('애인이 원한다면 콘돔이나 피임도구 없이도 섹스할 것이다'(역)), 의사소통의 기술 5문항('나는 성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내 의사를 주장하는 편이다')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총점이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55)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연인관계 만족도	32-193	95-182	68.51	18.96	-.27	-.65
젠더 고정관념	36-180	36-125	75.63	16.77	.71	.07
자기침묵	31-186	47-158	95.77	16.21	.05	.76
성적 자기주장	21-84	40-81	66.39	7.90	-.33	-.32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연과 이은설(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 하위요인에 따라 .63에서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에 적합한 요인의 수를 방사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 묶음 방법(radialitem parceling)을 통해 추출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이후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연구문제 검정에 앞서 연인관계 만족도, 젠더 고정관념,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의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첨도와 왜

도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5)의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왜도, 첨도값을 확인한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인관계 만족도는 젠더 고정관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r=-.08$, ns), 자기침묵($r=-.34$, $p<.01$)과는 부적 상관을, 성적 자기주장($r=.35$,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젠더 고정관념은 자기침묵($r=-.34$, $p<.01$)과 정적 상관을, 성적 자기주장($r=-.33$,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355)

	1	2	3	4
1. 연인관계 만족도	1			
2. 성 고정관념	-.08	1		
3. 자기침묵	-.34**	.24**	1	
4. 성적 자기주장	.35**	-.33**	-.55**	1

* $p<.05$, ** $p<.01$

장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55, p<.01$).

측정모형의 검정

측정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 & Altmaier(1998)이 제안한 문항묶음(parceling)을 통해 모든 척도의 잠재변수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변수 추정 시 편파를 줄이고 추정오차를 감소시켜 자료의 연속성 및 정상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 값은 357.681($df=144, p<.001$), 절대적 적합도인 RMSEA는 0.065(CI=.056-0.073)로 나타났다. 상대적 적합도인 CFI와 TLI는 각각 .954, .945로 나타났으며, SRMR은 .048이었다.

χ^2 검정은 표본의 크기, 추정하려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요인 모형의 분산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RMSEA, CFI, TLI, SRMR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보통 RMSEA의 값이 0.08 이하일 경우 측정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Brown & Cudeck, 1993). 또한 TLI와 CFI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며(Bentler, 1990),

SRMR이 .08 이하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특히 Hu와 Bentler(1999)는 CFI가 0.95 이상이면 SRMR이 0.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57~.94 사이의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수렴타당도를 지니며, .70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수렴타당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즉 본 연구에서 4개의 잠재변인을 19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검정

연인관계 만족도와 젠더 고정관념의 관계를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chi^2(N=355)=357.681, CFI=.954, TLI=.945, SRMR=.048, RMSEA=.065$),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모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90%CI)
측정모형	357.681	144	.954	.945	.048	.065 (.056 ~ .073)

연구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젠더 고정관념에서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07, ns$). 반면 젠더 고정관념이 자기침묵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gamma=.27, p<.001$), 자기침묵이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3, p<.01$). 젠더 고정관념에서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고($\gamma=-.20, p<.01$), 성적 자기주장에서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7, p<.01$). 마지막으로 자기침묵에서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는데($\beta=-.59, p<.001$).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젠더 고정관념에서 자기침묵을 거쳐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와 젠더 고정관념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거쳐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단순매개효과 그리고 젠더 고정관념에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Bollen과 Stine(1990)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원자료(N=355)로부터 우선표집하여 생성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와 성적 자기주장의 단순매개효과,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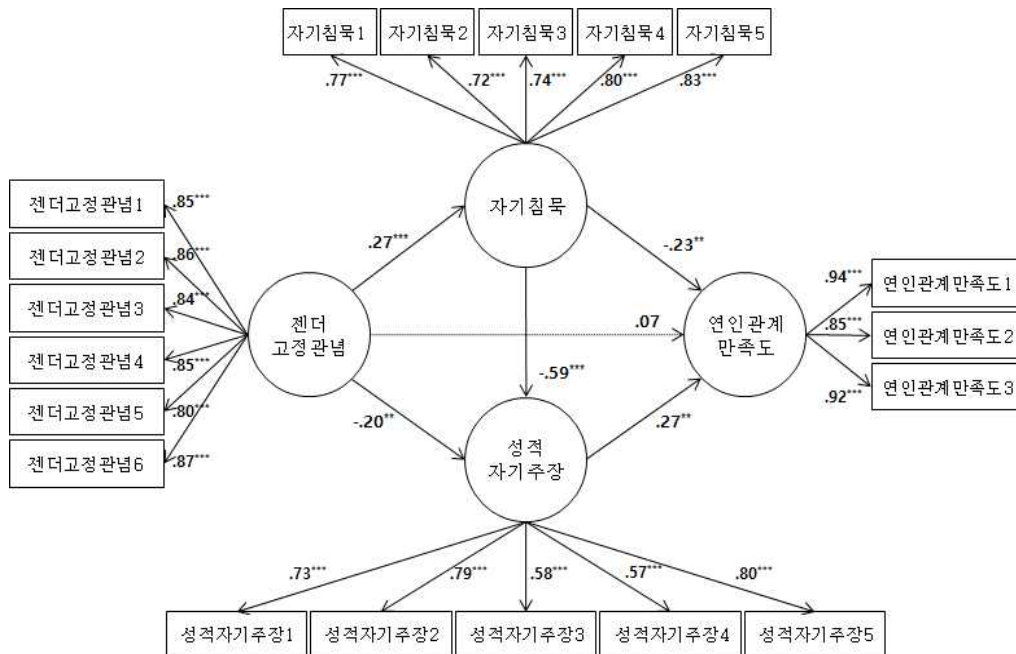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수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	upper
젠더 고정관념 → 자기침묵 → 연인관계 만족도	-.075*	-.114	-.010
젠더 고정관념 → 성적 자기주장 → 연인관계 만족도	-.055*	-.086	-.006
젠더 고정관념 → 자기침묵 → 성적 자기주장 → 연인관계 만족도	-.047*	-.071	-.006
젠더 고정관념 → 연인관계 만족도 총 간접효과	-.177***	-.202	-.090

* $p < .05$, ** $p < .01$, *** $p < .001$

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연인관계 만족도와 젠더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젠더 고정관념과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은 모두 서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연인관계 만족도와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 역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인관계 만족도와 젠더 고정관념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가 부적의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연구진 외, 2013; Donaghue & Fallon, 2003; Kiefer & Sanchez, 2007; Sanchez et al., 2012)와 배반되는 것으로서,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연인관계 만족도, 젠더 고정관념,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젠더 고정관념에서 연인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단순매개효과와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고정관념에서 자기침묵을 거쳐 연인관계 만족도로 가는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은 젠더 고정관념이 자기침묵을 매개하였을 때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의 특징을 상냥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다(Jack & Ali, 2010). 때문에 젠더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여성은 대인관계 내에서 친밀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자신(여성)의 의무를 다하고자 감정과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순종적이며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Harter, 2012; Mahalik et al., 2005; Smolak & Murren, 2004; Sheffield, 1995). 하지만

높은 수준의 자기침묵이 거짓자기를 만듦으로써 진실된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자기침묵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들은 연인관계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김명화, 홍혜영, 2011; Ayduk et al., 2003; Harper et al., 2006; Jack, 1991).

성적 자기주장 역시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젠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성은 성에 대해서 무지해야하고, 남성의 주도에 순응적이어야 한다는 의존적 여성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성적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손강숙, 정소미, 2016; Choi et al., 2015; Impett & Peplau, 2003; Sanchez et al., 2006; Vannier & O'sullivan, 2010). 여성이 원치 않은 성 행동에 대해서 응낙했을 때 정서적·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한다(Impett & Paplau, 2003). 반대로 여성이 성 행위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을수록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 경험을 쌓고, 만족스러운 연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경옥, 김영희, 2003; Beres, 2010; Noar, Carlyle, & Cole, 2006; Zhang & Yip, 2017). 성적 자기주장은 자기침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억누르고, 상대방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꾸며내는 것에 익숙해진 여성은 성적인 맥락에 있어서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게 된다(DeMarco & Johnsen, 2003; DeMarco & Lanier, 2014; El-Bassel et al., 2003). 이로 인하여 성과 관련한 개인의 욕구나 기호, 두려움, 기준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성적 주체로서의 의지를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을 보인다(이지연, 이은설, 2005; Deardorff, Tschann,

Flores, & Ozer, 2010; Jack & Ali, 2010; London et al., 2012).

반면, 젠더 고정관념에서 연인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효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beta = -.075$, ns). 이러한 결과는 젠더 고정관념이 서로의 성격이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 불만을 지각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들(Donahue & Fallon, 2003; Sanchez et al., 2012; Stackert & Bursik, 2003)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젠더 고정관념의 수준이 미국이나 중국 등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장수지, 2011; Cotter, Hermesen, & Vanneman, 2011), 예측했던 바와 상이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성 역할의 구분이 보다 확고한 시대에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90년대의 연구들에서는 젠더 고정관념의 수준이 낮을수록 서로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하는 고충이 있어 관계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im, 1992; Lye & Biblarz, 1993). 시대 간 상반된 연구 결과는 젠더 고정관념이 연인관계 만족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평등하고, 성별에 따라 지녀야 할 행동적 규범이 상황과 개인에 따라 유연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연인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규범이 성 차별적인 경향에서 점차 탈피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성별 역할 또한 점차 약화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인관계 내 상대방 남성의 젠더 고정

관념의 수준이 여성의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성이 연인관계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연인이 지닌 젠더 고정관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영희 외, 2013; 연구진 외, 2013). 현대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확고한 젠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고, 성 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데(김재은, 김지현, 2016; 이미나, 2016; 조우용, 김정인, 2016; 주혜진, 2015), 여성이 낮은 수준의 젠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더라도, 상대방 남성이 지닌 젠더 고정관념의 수준이 높다면 많은 갈등과 다툼이 야기되어 연인관계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젠더 고정관념은 연인관계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 성적 자기주장의 단순매개효과,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이 연인관계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여성이 젠더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된 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 및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연인 관계 내 성적 맥락에서도 자기의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여성은 관계적 맥락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은 여성의 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획득에 중요하지만, 연인

관계 내에서 여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사고와 행동이 연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건강한 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연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여성이 내는 목소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이 관계 내에서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젠더 고정관념이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을 통해 연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성별에 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유연하지 못한 신념이 가진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여성이 대인관계의 맥락이나 성적인 장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의 기저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여성이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규명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젠더 고정관념은 부모, 교사, 또래, 미디어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젠더 고정관념이 여성의 만족스러운 연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끼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자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젠더 고정관념을 약화시키려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불균형한 젠더 권력이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젠더 교육

강화, 법 제정 및 개정, 정책 구축 및 개선 등 젠더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성인 초기의 미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연인관계의 중요성이 성인 초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나 청소년의 연인관계 만족도에서도 젠더 고정관념이나 자기침묵, 성적 자기주장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판삼아 연구 대상의 연령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른 조절 효과의 존재 유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상대방(남성)이 지니고 있는 젠더 고정관념 수준이나 연인관계 만족도에 따라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 연인관계 만족도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안지인, 고영건, 2014; 연구진 외, 2013).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연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연인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젠더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도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다. 젠더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는 실시가 용이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이고 온정적인 수준에서의 젠더 고정관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lick & Fiske, 1996). 그러나 젠더 고정관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경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적 신념을 숨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젠더 고정관념보다 더 낮은 수준

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Benaji & Greenwald, 199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점화과제나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을 통해 암묵적으로 발현되는 젠더 고정관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스젠더(생물학적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한 사람)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성애 관계만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가진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 (2008). 연애, 한국문학의 은밀한 욕망. *문학과 사회*, 21(1), 246-258.
- 김명화, 홍혜영 (2011). 자기침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69-97.
- 김지은 (2016. 5. 24). 이유 있는 언니들의 분노...통계로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45187.html>
- 변혜정 (2004).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성폭력 행위와 피해 의미의 탐색.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 변혜정 (2010). 이성애 관계에서의 자기 계발 연애와 성적 주체성의 변화. *생명연구*, 17, 53-92.
-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안지인, 고영건 (2014).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 행동 응낙과 애착이 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33-251.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1, 57-80.
- 우르술라 티드. (2007). 시몬드 보브아르 익숙한 타자. (우수진 역). 서울: 앨피. (원저 2004 출판)
- 윤가현, 양동욱 (2016). *성 문화 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정은 (2001). 여성의 '침묵'과 목소리. *시대와 철학*, 12(1), 177-205.
- 이지연, 이은설 (2005). 애착, 강간통념 및 성적 자율성과 데이트 성폭력과의 관계. 2005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46-347.
- 장수지 (2011). 문화와 성역할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31-45.
-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조혜자, & 방희정. (2003).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01-1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성격차지수 보고서*.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Alvarez, C., Bauermeister, J. A., & Villarruel, A. M. (2014).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young adult heterosexual Latino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25(6), 577-588.
- Arata, C. M., & Lindman, L. (2002). Marriage, child abuse, and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9), 953-971.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bin, E. A. (2013). An examination of predictors of nonverbal and verbal communication of pleasure during sex and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3), 270-29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115-140.
-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1), 136-136.
- Butzer, B., & Campbell, L. (2008). Adult attachment, sexu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tudy of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41-154.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D. R.,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 Cejka, M. A., & Eagly, A. H. (1999). Gender-stereotypic images of occupations correspond to the sex segregation of employ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4), 413-423
- Choi, S., Yang, D., & Youn, G. (2015). Lat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peers who report a large number of sex partners.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4*(1), 1-4.
- Cotter, D., Hermsen, J. M., & Vanneman, R.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1), 259-89.
- Cunningham, J. D., & Antill, J. K. (1981). Love in developing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2*, 27-51.
- Deardorff, J., Tschann, J. M., Flores, E., & Ozer, E. (2010). Sexual Values and Risky Sexual Behaviors Among Latino Youth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2*(1), 23-32.
- DeMarco, R., & Johnsen, C. (2003). Taking action in communities: Women living with HIV/AIDS lead the way.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51-62.
- DeMarco, R. F., & Lanier, L. R. (2014). The concept of "silencing the self" in low-income, aging, HIV-infected African American women: a 10-year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program of research with resul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25*(2), 112-122.
- Donaghue, N., & Fallon, B. J. (2003). Gender-role self-stereotyp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quity an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Sex Roles, 48*(5), 217-230
- Duarte, L. M., & Thompson, J. M. (1999). Sex differences in self-silencing. *Psychological reports, 85*(1), 145-161.
- Drew, S. S., Heesacker, M., Frost, H. M., & Oelke, L. E. (2004). The role of relationship loss and self-loss in women's and men's dysphori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3), 381-397.
- East, P., & Adams, J. (2002). Sexual assertiveness and adolescents' sexual right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 212-213.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
- El-Bassel, N., Witte, S. S., Gilbert, L., Wu, E., Chang, M., Hill, J., & Steinglass, P. (2003). The efficacy of a relationship-based HIV/STD prevention program for heterosexual coupl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6), 963-969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 Fowers, B. J., & Olson, D. H. (1993). ENRICH Marital Satisfaction Scale: A brief research and clinical t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176.
- Fra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3), 331-352.
- Funk, J. L., & Rogge, R. D. (2007). Testing the ruler with item response theory: increasing precision of measurement fo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Couples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572.
- Gibbons, J. L., Hamby, B. A., & Dennis, W. D. (1997). Researching gender role ideologies internationally and cross culturall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51-170.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Gunnarsson, L. (2014). *The contradictions of love: towards a feminist-realist ontology of sociosexuality*. Routledge.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York: Macmillan.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Hart, B. I., & Thompson, J. M. (1996).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4), 407-426.
- Harter, S. (2012).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oundation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Jack, D. C., & Ali, A. (Eds.). (2010). *Silencing the self across cultures: Depression and gender in the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Johnson, A. G. (2005). *The gender knot: Unraveling our patriarchal legacy*. Temple University Press.
- Joyner, K., & Udry, J. R. (2000). You don't bring me anything but down: Adolescent rom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9-391.
- Katz, J., & Tirone, V. (2009). Women's sexual compliance with male dating partners: Associations with investment in ideal womanhood and romantic well-being. *Sex Roles*

- 60(5-6), 347-356.
- Kite, M. E., Deaux, K., & Haines, E. L. (2008). Gender stereotypes. In F. L. Denmark & M. A. Paludi (Eds.), *Psychology of women: A handbook of issues and theories (2nd Ed., 205-236)*. Conn: Praeger.
- Kite, M. E., & Whitley, B. E. (2016). *Psycholog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sychology Press.
- Kim, H. (1992). Gender role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coupl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99-120.
- Kiefer, A. K., & Sanchez, D. T. (2007).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s, 14(2)*, 269-29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dford publications.
- Litzinger, S., & Gordon, K. C. (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1(5)*, 409-424.
- London, B., Downey, G., Romero-Canyas, R., Rattan, A., & Tyson, D. (2012). Gender-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academic self-silencing i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61.
- Lye, D. N., & Biblarz, T. J. (1993).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family life and gender role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157-188.
- MacNeil, S., & Byers, E. S. (2005). Dyadic assessment of sexual self-disclosure and sexual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2)*, 169-181.
- Mahalik, J. R., Aldarondo, E., Gilbert-Gokhale, S., & Shore, E. (2005).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and gender role stress in predicting controlling behaviors i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5)*, 617-631.
- Meeks, B. S., Hendrick, S. S., & Hendrick, C. (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6)*, 755-773.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 Burkholder, G. J.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
- Muehlenhard, C. L., & McCoy, M. L. (1991). Double standard/double bi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women's communication about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3)*, 447-461.
- Noar, S. M., Carlyle, K., & Cole, C. (2006). Why communication is crucial: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r sexual communication and condom us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4)*, 365-390.
- O'Sullivan, L. F., & Byers, E. S. (1992). College students' incorporation of initiator and restrictor roles in sexual dating interaction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9(3)*, 435-446.
- Patricia, J. M.,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Sanchez, D. T., Phelan, J. E., Moss-Racusin, C.

- A., & Good, J. J. (2012). The gender role motivation model of women's sexually submissive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4), 528-539.
- Sanchez, D. T., Kiefer, A. K., & Ybarra, O. (2006). Sexual submissiveness in women: Costs for sexual autonomy and arous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512-524.
- Scanzoni, J. (1977). Changing sex roles and emerging directions in family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3), 185-188.
- Smolak, L., Murnen, S. K., & Thompson, J. K. (2005). Sociocultural influences and muscle building in adolescent boy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4), 227.
- Tan, J., & Carfagnini, B. (2008). Self-silencing,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35(2), 5-18.
- Thompson, J. M. (1995). Silencing the self: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3), 337-353.
- Thompson, J. M., Whiffen, V. E., & Aube, J. A. (2001). Does self-silencing link perceptions of care from parents and partner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4), 503-51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Vannier, S. A., & O'Sullivan, L. F. (2010). Sex without desire: Characteristics of occasions of sexual compliance in young adults' committed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47(5), 429-439.
- Whitley Jr, B. E., & Kite, M. E. (2016). *Psycholog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ondon: Routledge.
- Widman, L., Welsh, D. P., McNulty, J. K., & Little, K. C. (2006). Sexual communication and contraceptive use in adolescent dating coup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6), 893-899.
- Zhang, H., & Yip, P. S. (2017). Perceived and actual behavior in female sexual assertiveness: A within-couple analysis in Hong Kong.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9.

1차원고접수 : 2018. 07.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9. 20.

최종원고접수 : 2018. 09. 2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Couple Relationships Satisfaction of early adulthood woma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ilencing and Sexual Assertiveness

Hyosun Choi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the satisfaction of couple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women. In addition, tried to find out whether self-silencing, which suppresses their own thinking or behavior, and sexual assertiveness which expresses their intention in sexual context play a mediating role.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355 unmarried women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dating for more than 3 months,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 stereotypes, self-silencing, and sexual assertiv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ender stereotypes did not directly predict the satisfaction of the couple relationship but it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couple relationship was influenced by the simple mediation of self-sil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silencing and sexual assertiveness was also prove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omen's voices in the process of women's thoughts and actions into forming a satisfying relationship.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stereotypes about gender on individual's relationship, presented directions for individuals and society to move forward.

Key words : *early adulthood wome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 stereotypes, sexual assertiveness*